

목포권

목포시장 '기업도시' 폼하 발언 무안주민 발끈 '무안반도 통합' 갈등 재연되나

정종득 시장 "서남권 협력·상생의미 외전" 해명

무안반도 통합을 둘러싸고 목포시와 무안군간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안지역주민들은 최근 정종득 목포 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무안반도 통합 추진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무안기업도시의 성공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무안군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무안기업도시의 성공가능성에 의문하고 있으나 중국도 개발이 안된 곳이 많은데 무안에 투자하겠느냐"는 정시장의 지난 10일 발언이 무안기업도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안지역 44개 지역 사회단체장들도 공개질의서를 통해 "무안기업도시의 기업유치 활동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이때에 정 시장의 발언은 기업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종득 목포시장은 18일 배포한 해명서에서 "무안기업도시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서남권 시·군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순수한 의미로 발언한 것이 외전됐다"며 "서남권이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보고 인근 시·군간에 협력과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시장은 "이같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지역간 갈등과 오해를 불러 일으킨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하고 "무안군과 목포시가 협력해야 무안기업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시장이 지난 10일 '민선 4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기내 무안반도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양 시·군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 시장은 광역화를 통한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무안반도 통합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최근 조직개편 과정에서 '광역행정계'를 신설하는 등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삼석 무안군수는 "기업도시 성공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해 임기내 무안시 승격을 실현시키겠다"며 무안반도 통합론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무안군수를 비롯한 무안주민들이 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무안반도 통합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무안=이원희기자 whlee@



개발행위가 제한된 무안을 교촌 6구 기업도시 예정지구에 가축 묘 7기가 불법으로 조성됐다.

기업도시 보상노린 불법 판친다

개발행위 제한지역내 가축묘 조성·나무 심어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무안기업도시 예정 지구내에서 가축 묘를 조성하거나 보상을 노리고 각종 유실수와 정원수를 심는 등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해 10월 13일자로 무안기업도시 예정 지구 1천220만평과 주변 반경 2km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공포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모든 개발 행위나 형질변경, 증·개축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지난 9월 중순 기업도시 예정 지구내인 무안을 교촌 6구 김포씨 산에 들레석과 제상, 망주까지 갖춘 가축묘지 7기가 불법으로 조성됐다.

특히 이곳은 무안을 우회도로인 국도 1호선에서 불과 100여m 거리에 위치해 있어 도로변에서 바라보이는 지

역인데도 무안군에서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서서 등 녹장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개발행위 제한지역내에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유실수를 뿌뿌이 심는 가 하면 무궁화과 백일홍 등의 정원수까지 심는 불법 행위가 가승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보상을 노린 나무 식재는 무안읍과 망운·현경면 등 일부 지역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내에서의 무단형질변경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각종 유실수와 정원수를 심는 행위가 잦아데도 군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때문에 기업도시가 본격화되면 불필요한 국민 세금이 보상으로 새 나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무안 '낙지골 주차타워' 준공



무안군이 최근 공용터미널 인근인 갯벌낙지거리 입구에 사업비 22억원을 투입, 75대를 수용할 수 있는 3층 주차타워를 준공했다. '낙지골 주차타워'로 명명된 이 주차장은 당분간 무료로 개방된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목포시의회 의원들 일일 환경미화 활동

목포시의회 박병석 의장과 초선의원들이 '일일 환경미화요원 체험'에 나섰다. 박의장과 초선의원 10명은 17일 새벽 4시부터 야강조끼를 착용하고 목원동 일대의 골목을 청소하고 미화요원들을 위로 격려했다.

초선의원들은 최근 심도있는 시정질문의 의안처리를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장을 순차적으로 체험기로 결정하고 첫 번째로 1일 미화요원 체험활동을 벌였다.

한 초선의원은 "업무를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산과 관련한 심의는 반드시 현장체험을 거치는 것을 향후 4년간의 정활동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ilee@

승달국악대제전

21~22일 무안문화회관

'제 4회 승달 전국 국악대제전'이 오는 21~22일 무안군 승달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승달 국악 대제전은 지난 2003년부터 관소리, 관소리 고백, 전통무용, 기악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전국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각 부문 장원에게는 국회의장 상, 문화관광부장관상과 농림부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한편, 22일 오후 4시에는 무안출신 국악 강용환·감남중 선생과 가야금의 한 일가를 이룬 강태홍 선생의 예술정신을 기리는 국악공연이 열린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지역 단신/

목포소방서 '장비검열' 최우수

목포소방서(서장 박남배)가 전남도 주관 2006년도 소방장비검열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을 받는다.

지난 9월 전남도내 10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장비검열에서 목포소방서는 보유 소방차량 55대와 각종 화재진압, 구조·구급 장비를 완벽하게 정비, 가동률 100%를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목포=이상선기자 silee@

목포 시민 PC이용 경진대회

목포시는 '제 6회 목포시민 PC이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오는 11월 11일 목포과학대학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주부부, 장년부, 실버부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경연을 벌인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목포시청 정보통신과에 전화(270-8507)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목포=이상선기자 silee@

목포 해안선 30여Km 야경 조성

목포시가 다음달부터 해안선 야간경관조명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해안선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을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영산강하구언에서 목포인터체인지에 이르는 30여Km 해안선까지 총 8개 지구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디자인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200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3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 예정이어서 새로운 볼거리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ilee@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Rows include various statistics like population, area, and other metrics.

Advertisement for 'Noksan' (녹산오디) featuring images of raspberries and product packaging. Text includes '현대인의 웰빙식품 오디 녹산오디' and '녹산오디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A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properties, land, and commercial building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agencies like '대인동심일부동산', '유성공인중개사', '인애공인중개사', '동부부동산건설링(주)', '하이랭크 건설링', and '방방국국부동산건설링(주)'.